

**2020년 4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 CFO 명형국 부사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사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분기 BNK금융그룹 경영실적에 대해 실적발표 자료의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2020년 4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연간 당기순이익은 5,193억원으로 전년대비 429억원, 7.6% 감소하였습니다.

4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719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순이익의 주된 감소 요인이 된 코로나 충당금 1,465억원 적립과 양행의 희망퇴직비용 914억원 등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익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부문의 이익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전년대비 0.1%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수수료부문의 이익은 계열사들의 PF수수료 이익 증가와 주식 및 파생상품 수수료 수입 확대로 전년대비 47.6%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양행의 희망퇴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약 914억 원의 희망퇴직비용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희망퇴직 비용 제외 시 증가폭은 5.7% 수준입니다.

금년도 인건비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총당금전입액은 4,536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총당금 제외할 경우 2019년 총당금 규모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계열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코로나 관련 선제적 총당금 적립 및 희망퇴직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비은행부문은 투자증권 중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21.9%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은행 당기순이익은 3,085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하였습니다. PF수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총당금 적립과 두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실시로 순이익 감소폭이 컸습니다.

경남은행 당기순이익은 1,646억원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하였습니다.

비은행에서는 캐피탈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8.9% 감소하였습니다만, 투자증권 당기순이익은 주식 및 파생상품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154% 이상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4분기 그룹 NIM은 1.83%로 전분기 대비 1b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그룹 분기 NIM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마진하락 우려에서 벗어나서 NIM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은행의 NIM은 1.87%, 경남은행 NIM은 1.78%으로 핵심예금 증가와 예대금리차 개선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을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은행 순이자마진은 핵심예금 확대와 여수신금리 관리강화로 예대금리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금리 반등에 따라서 일정 폭의 마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그룹 NIM은 전년대비 2~3bp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년 NIM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원화대출금은 각각 전년대비 9.1%, 7.1%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금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대출 성장율은 각각 8.8%, 6.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난해 4분기 그룹 NPL비율은 0.70%로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성장으로 인한 부도/도산 감소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4bp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은행 NPL비율은 0.67%로 전분기대비 13bp 하락하였고, 경남은행은 0.74%로 전분기대비 18bp 하락하였습니다.

4분기 그룹 연체율은 0.48%로 선제적 건전성관리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13bp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연체율도 각각 0.43%, 0.50%로 전분기 대비 각각 7bp, 10bp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룹 NPL비율과 연체율은 2011년 지주사설립이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룹 총당금전입액은 4,536억원으로 지역의 부실 여신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총당금 적립 확대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 고정이하여신 커버리지비율은 123.6%로 전년대비 24.5%p 개선되었습니다.

그룹 Credit Cost는 51bp로 전년대비 2bp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총당금 제외할 경우 그룹 Credit Cost는 35bp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9.80%로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불구,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으로 전년대비 26bp 상승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룹 내부등급법 현황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위한 모형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1분기 이내에 내부등급법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부등급법 적용하게 되면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확정 예정이지만 금융위의 권고안을 참고 하여, 2020년 주당 배당금은 전년대비 40원 감소한 320원, 배당성향은 20%로 오늘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가 배당률은 5.4%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년부터 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 상향 정책 이어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룹 당기순이익 목표는 지역경기의 반등 전망에 따라서 6,02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순이자마진과 대출성장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IB부문의 사업다각화로 新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철저한 대손 및 판매관리비 통제를 통해 금년도 연간 계획을 무난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p) 그룹 ESG 현황

마지막으로 ESG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그룹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ESG비전 하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환경 변화 및 지속가능금융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한 ESG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 달성과 함께 지배구조 우수기업상의 수상받는 등 ESG 역량이 뛰어난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룹의 ESG 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